

멕시코

투자적격등급 회복과 향후 전망

지난 2월 6일 Moody's가 멕시코의 장기외채 신용등급을 Baa3에서 Baa2로 상향 조정한 데 이어, 바로 다음날인 2월 7일에는 Standard & Poor's(S&P)도 멕시코의 신용등급을 종전의 BB+에서 약 2년만에 투자적격등급인 BBB-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하였다. 이에 앞서 Fitch는 금년 1월 15일 동국의 신용등급을 투자적격등급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로써 멕시코는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들로부터 모두 투자적격등급을 획득하게 되었다.

이는 멕시코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는 물론 미국의 경기부진에서 비롯된 멕

시코의 경기침체 극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외채 차입비용이 대폭 줄어들어 재정의 안정적 운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멕시코의 신용등급 상향 조정에는 동국 수출의 약 90%를 차지하는 미국과의 경제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있는 점, 동국 정부가 예산지출 억제 및 세수 증대를 통해 재정적자를 줄이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점, 아르헨티나 금융위기의 여파로 여타 중남미 국가에 대한 외국인투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동국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온 점 등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멕시코의 신용등급 변화추이

S&P		Moody's		Fitch	
일 자	등 급	일 자	등 급	일 자	등 급
2002. 2. 7	BBB-	2002. 2. 6	Baa2	2002. 1.15	BBB-
2000. 3.13	BB+	2000. 3. 7	Baa3	2000. 5. 3	BB+
1995. 2.10	BB	2000. 2. 2	Ba1	2000. 4.11	BB
1992. 7.29	BB+	1999. 6.22	Ba2	1995. 8.30	BB

자료: Bloomberg.

## 경계선에 위치한 경제상황

2001년의 멕시코 경제는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재무성 증권의 수익률은 2001년 중 10% 이상 하락하여 8.15%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소비자물가상승률도 아일랜드의 수준에 해당하는 4.4%로 대폭 개선된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지난해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동국 정부의 재정관리능력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높아지고 외국인투자<sup>1)</sup>가 증가하는 데 힘입어 폐소貨는 미 달러貨에 대하여 5.1% 절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동국 경제의 부정적인 측면도 부각되고 있다. 경기침체 지속 및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 전망에 더하여 정부의 에너지 산업 투자촉진법 개정에 대한 야당의 반대가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다 임금상승과 환율절상도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GDP에서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11%)이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매우 낮은 수준인 점, 석유수입(재정의 약 1/3)에 대한 재정의존도 심화 등도 개선해야 할 취약점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이번 Moody's 및 S&P의 신용등급 상향조정으로 인해 멕시코의 투자 안정성은 여타 중남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최근 의회의 반발로 정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Vicente Fox 대통령의 입지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Fox 대통

령은 금년도 세수확대를 위해 식료품과 의약품에 대해 15%의 부가가치세(VAT)를 도입하려 하였으나 의회의 반발로 이의 도입이 무산되었다. 이외에도 정부의 전력 보조금 삭감정책과 전력부문 개발을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정책도 의회의 반대에 직면해 있다.

### 최근 소비자물가 불안 조짐

금년 1월 중 멕시코의 소비자물가가 0.92% 상승하여, 2001년 9월의 0.95% 상승 이후 월중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최근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이외에도 지난달의 휴대폰 요금과 담배 가격 인상, 향수·제트스키 등의 사치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인상(15%→20%)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 12개월 동안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79%를 기록하였다.

멕시코 통화당국은 금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목표를 4.5%로 잡고 있으나 폐소貨의 약세 전망, 물가상승률을 3~4% 포인트 상회하는 최근의 임금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목표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동국 정부의 부가세 인상과 전력 보조금 삭감정책에 대한 의회의 수정통과 전망에 따라 금년도 통화당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 목표의 달성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경제분석가들은 경제회복 및 소비수요 회복에 따라 금년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1) Bloomberg에 의하면 2001년중 멕시코의 외국인투자금액은 2000년에 비하여 80억 달러 증가한 반면, 브라질의 외국인투자금액은 약 8,900만 달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Guillermo Ortiz 멕시코 중앙은행 총재는 잠재적인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억제시키기 위해 향후 긴축통화정책의 실시를 시사한 바 있다.

### 장기 전망은 밝아

멕시코의 투자적격등급 부여가 이미 시장에서 예견되어 왔기 때문에 실제 등급상향조정에 따른 금융시장의 반응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멕시코 정부, 기업과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멕시코 정부채권의 가산금리가 줄어들어 기업들은 종전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외화를 차입할 수 있게 되고, 주식 및 채권시장도 신규 투자자의 추가확보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남미에서 S&P로부터 투자적격등급을 부여받은 국가는 칠레, 우루과이<sup>2)</sup>, 바베이도스, 트리니다드토바고 등에 불과한데, 특히 멕시코는 이들 국가들에 비해 경제규모가 훨씬 크며 가장 역동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경제분석가들은 이번 투자적격등급 부여로 멕시코가 금년 중 약 50억 달러에 달하는 외국인투자금액을 추가적으로 유치하는 효과를 갖게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멕시코는 아르헨티나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가장 안정된 신흥시장 중 하나로 평가받아 왔다. 동국은 여타 중남미 국가와는 달리 리스크 프리미엄이 낮고 외국인투자를 꾸준히 유치해 왔으며, 이런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멕시코 경제는 미국의 경기침체와 같은 외부충격에 취약한 편이며, 공공부문의 차입수요도 GDP의 약 4%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의 신뢰유지가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행정부와 의회의 관계개선, Fox 대통령의 국민행동당내 지지기반 확보 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李 漢 九】

2) S&P는 지난 2월 14일 우루과이의 국가신용등급을 투자적격등급인 BBB-에서 투자부적격등급인 BB+로 한 단계 하향조정 하였음. 동사는 등급조정 사유로 우루과이의 재정개혁 미흡, 메르코수르 의존형 경제구조로 인한 미미한 성장률 전망, 아르헨티나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금융부문의 취약성 등을 들었음.